

☑ 홈 > 뉴스 > 지역 > 춘천

## 춘천시 문화재단 설립 '난항'

발기인 총회 일정 못잡아 연내 발족 차질 우려

2008년 10월 02일 (목)

진종인

연내 발족을 목표로 추진됐던 춘천시 문화재단 설립이 발기인 총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춘천시는 재단법인 형태의 '춘천시 문화재단'을 연내 설립하기 위해 '춘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발기인과 이사진을 선정하지 못했다.

이번에 설립되는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진흥 및 정책개발 △전통문화예술 활동 지원 △문화예술 창작·보급지원 △시민문화향수 제고 사업 △문화예술시설 수탁운영 관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활동을 하게 되며 15명 이내의 이사와 이사중에서 호선된 이사가 비상임 이사장을 맡는다.

조직은 기획팀과 사업운영팀, 문화재발굴조사팀 등 3개팀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문화재발굴조사팀은 문화재청의 발굴, 조사업무 처리지침이 개정되는 내년 6월이후에 구성할 계획이다.

춘천시는 우선 설립 자본금으로 춘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적립된 8억여원을 출연하고, 재단운영의 조기정착을 위해 일정기간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용기 춘천시 경제관광국장은 "내부적으로 이사진 구성은 마쳤다"며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이달중이라도 발기인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문화계에서는 "이사진 선정이 늦어지면서 문화계와 전혀 관계없는 인사들이 포함됐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며 "문화계를 발전시키는데 적합한 인물이 포함되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언급, 이사진 면면에 따라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춘천/진종인 whddls25@kado.net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